

심리학이 디자인한 현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박동섭: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무늬만 비고츠키 연구자들’의 사상의 원류인 「논리실증주의」. 물리학의 영역에서조차도 지나치게 경직되고 협소한 관점으로 비판받은 지 오래된 그 「논리실증주의」라는 프로크로스테스 침대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비고츠키 구하기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음. littleegan@gmail.com

디자인이란?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말을 바꾸면 ‘디자인해 놓은’ 세계에 태어나서 그 세계 안에서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디자인의 라틴어 어원은 ‘de signare’ 즉 ‘to mark_표시하기’를 뜻한다. 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이어진다. ‘대지에 돌을 나열해서 토지를 구분하는 것’, ‘시간의 흐름을 태양의 높이로 구분하는 것’ 그리고 ‘어떤 현실에 인간이 손을 대서 가공하는 것’ 등. 마지막 정의를 눈여겨보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질서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으로, 어떤 디자인을 사람들이 새롭게 공유한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것과는 다른 현실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맛있는 컵에 손잡이를 만들어 붙이면 그 손잡이에 손가락을 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물리적 성질의 변화는 ‘행위’의 변화로 연결된다. 컵의 무게가 가볍다는 전제 하에 손가락 모두에 컵을 하나씩 걸면 최대한 한 번에 10개의 컵을 동시에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위의 변화는 필히 행위자의 ‘마음’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예컨대 커피숍에서 7명의 손님이 마시고 간 컵을 한 번에 2개씩만 치우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본 고용주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종업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컵의 디자인이 변함으로써 컵의 운반 가능성이 변했다. 이는 종업원에게도 고용주에게도 동시에 지각 가능한 ‘현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운반 가능성만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컵에 관련된 사람들의 지각 가능한 현실’ 그 자체가 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컵 모양새의 변화, 즉 컵 디자인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의 변화를 잘 관찰해보면 디자인은 대상의 물리적인 변화, 그것에 따른 사람의 행위와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지각 가능한 현실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수업이라는 디자인

우리가 ‘디자인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논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참여 관찰한 어느 수업 장면을 하나 소개한다.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시간에 도형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아이들은 삼각형 형태 색종이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 완성되면 손을 들어 교사를 부른다. 교사는 완성된 모양을 확인한 후 B5 크기의 종이를 건네면 아이들은 거기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붙여서 제출한다. 이 수업을 관찰하던 필자는 서서히 아이들의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자신만만하게 힘차게 손을 들어 올리는 아이들 속에 끝까지 손을 들지 않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주위 친구들은 종이에 자신의 작

1) 『불협화음론자 비고츠키 그 첫 번째 이야기』 박동섭 저, 서현사

품을 채워가고 있는데 이 친구만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에 열중해서 무언가를 달성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또 무엇인가를 달성하는 속도도 보인다. 또한 아이들 작품의 창의성 유무와 잘 되었는지의 여부도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아이의 능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아동 내부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모습일까? 혹 우리는 아이 ‘내부’에 붙박여 있다고 생각되는 소위 ‘능력’과 ‘능력차’라는 것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부단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서 관찰된 아이들의 ‘내부 모습(예컨대 능력)’은 실은 바깥의 ‘수업 디자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과제를 완성하면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동시에 과제를 회수하면 아이들 사이의 작업 속도 차이라는 현실과 끝까지 손을 들지 않는 아이의 모습은 실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아이들에게 개별 작업을 시켜 일대일 지도를 하는 경우나 반에서 통틀어 한 장만을 만들어 내는 수업 디자인의 경우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수업 디자인’과 ‘아이의 능력’에 관한 흥미로운 관계를 시사한다. 즉 교사의 눈앞에 있는 아이가 예컨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가, 못하는 아이인가’ 하는 것은 아이가 내부에 갖고 있는 즉 원래부터 갖고 있는 개체의 속성이 아니라 특정한 수업 디자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수업 디자인이란 단순히 수업교재와 과제,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다룰 것인가’ 하는 정체성의 디자인인 것이다. 즉, 학습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은 ‘아이를 어떠한 존재로 다루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은가?’라는 지극히 사회·문화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내장하고 있다.

예컨대 단순히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만을 ‘학력(學力)’으로 정의하면 학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주입하고 그것이 아이 내부에 제대로 정착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수업 디자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아이 내부에 있다고 여기는 ‘학력’이라는 것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아이의 ‘바깥’ 즉 특정한 관찰의 테크놀로지(예컨대 다음과 같은 말하기 방식; 교사: 지금 몇 시입니까? 학생: 10시 50분입니다 교사: 참 잘했어요!)를 사용한 수업 디자인을 구성하면 된다. 이 경우 아이는 필연적으로 학력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이가 ‘내부’에 갖고 있다고 보는 학력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관찰의 테크놀로지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 아이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사람들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니까 푸코(M. Foucault)식으로 말하자면 ‘장부’ 즉 ‘성적표’라는 사회·역사적 인공물(artifact)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적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또 다른 사회·역사적 인공물인 ‘평균’, ‘분산’, ‘표준편차’와 같은 도구도 필요하겠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우수하고 누가 뒤처지느냐라는 ‘마음’이 만연하는 현대 한국의 교실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사회·역사적 인공물에 힘입은 근대 이후에 생겨난 ‘디자인된 현실’ 덕분인 것이다. **그리고 그 디자인된 현실 덕분에 학교가 없었던 시대의 ‘개인’과는 다른 종류의 ‘개인’도 탄생되게 된 것이다.**²⁾

유럽에 유학하고 있는 어느 한국인 여고생이 교실에서 느낀 이질감의 정체도 그녀가 현대 한국의 교실과는 다른 디자인된 현실에 살고 있음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현대의 아동심리학이 추구해야 할 과제는 다름 아닌 영원한 아이(Eternal Child)가 아니라 역사적인 아이(Historical Child), 혹은 괴테의 시적인 말을 빌려서 말해 보면 순간순간을 사는 아이(Transitory Child)를 밝히는 것이다. 건축가가 거뜨떠보지도 않았던 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Vygotsky, 1934).

선생님이 성적표를 나눠 주기 위해 학생 이름을 한 명씩 부릅니다. 자신의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 대부분이, 성적표를 보곤 (만족스럽다는 듯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유럽에서 공부 중인 우리나라 여고생이 전하는 한 교실의 풍경입니다. 처음엔 겨우 두세 개만 틀려도 시험을 잘 못 봤다며 유럽 친구들 앞에서 울상을 짓다가 거의 왕따 수준의 공격을 받을 뻔했던 한국 여고생은 이제 그들을 이해하는 눈치입니다.³⁾

그 한국인 여고생이 재학 중인 유럽의 어느 학교도 ‘성적표’는 확실히 존재한다. 그런데 모르긴 해도 그 성적표에는 ‘점수’는 나와 있되 ‘반 석차’나 ‘전교 석차’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역사적 인공물은 포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도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표를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울상을 짓는 것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듯 바뀐 한국인 여고생.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A라는 디자인된 현실에서 B라는 디자인된 현실로 갈아타기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아닐까?

지능검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

사회·역사·문화적 진공 상태에서 살고 있는 개인이 아니라 ‘디자인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개인이라는 명제에 주목하는 것이 나의 학문적 포지션이다. ‘주류심리학’에 대한 나의 이의제기 중 하나는 그 학문이 이러한 ‘디자인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이라는 **소박한** 사실을 오랫동안 너무 등한시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 대상이 되는 것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손잡이가 달린 컵’과 같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즉 형태가 없는 것도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만’ ‘지능’ ‘학력(學力)’ 같이 어떤 사상(事象)에 대한 이름표 붙이기다. 우리는 추상적인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기술하거나 이름을 붙여 마치 그것을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실체화’한다. 이렇게 실체화된 사상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비만’은 우리에게 매우 가시적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눈에도 똑같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대 어떤 문화에서 뚱뚱한 것은 부의 상징이었고 따라서 동경의 대상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비만’을 실체로서 다루고 행위대상으로 여긴다. ‘비만’은 우리의 활동기준이 되고 일상에서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비만퇴치 전문기관 같은 시장까지 있다. 과체중과 각종 성인병에 관련된 의학적 데이터가 존재하고 TV에 나오는 탤런트가 사람들의 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날씬한 것이 가치 있고, 표준체중 같은 기준이 있는 사회 속에서야 비로소 ‘비만’은 사람들의 눈에 ‘실체’로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면 비네(A. Binnet) 등에 의해 제창되고 웨슬러(D. Wechsler) 등에 의해 **정교화된** ‘지능지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력’이라는 능력개념은 어떨까?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의 향상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위한 시장까지 만들어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기준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둘 다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사람들의 행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학원, 표준 테스트, 커리큘

3) 『홀가분』 정혜신, 이명수 저, 해냄출판사.

럼, 통계,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사회적 인공물(artifact)’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류심리학과 학교교육이 연동하여 만들어 낸 ‘개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온 ‘지능’과 ‘학력’ 등은 그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차별화하고 서열화하는 사회와의 관계로서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능’과 ‘학력’은 많은 인공물의 디자인을 통해서 ‘개인의 특성’으로서 돋보이게 되고, 제도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양식으로 부각되는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뭔가 객관적·불변적 특성으로 **지능검사의** 대상(예컨대 아이)에게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지능’이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을 일정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각 개인에게 고유한 안정된 측정치를 추출하고 부각시킴으로써 개인을 서열화하는 ‘문화적’ 산물로 보아야 한다. 아이도 그 사회 혹은 문화에 맞추어서 자신의 ‘머리 좋음’(실은 그것이 사회와의 관계의 산물임에도)을 소유하고 타고난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서열화된 카테고리의 사회적인 이미지에 자신을 맞추어간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능’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마치 이전부터 개체의 내부에 있어왔던 ‘실체’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게끔 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자와 선생님의 입장을 간단히 대변하자면 기존의 지능검사보다 더 나은 지능검사(예컨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검사)를 학교에서 실시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그보다 지금까지의 심리학이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그 개인이 갖고 있거나 획득하는 것으로 보고,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머릿속 혹은 마음속에 귀속시키는 관점이 학교교육에서 능력획득 경쟁을 격화시키고, 능력에 따른 차별을 양산하고, 교사의 가르침을 ‘관리화’하고 예측과 계획의 기술을 교수기법으로 보게 하는 관점을 뒤에서 정당화해왔다는 사실을 지능검사를 단적인 예로 들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리학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제공해온,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아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기 힘든 ‘디자인된 현실’을 반성하고 그러한 현실의 재디자인을 오자와 선생님은 역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능검사는 차별 및 배제와는 무관한가?

다음으로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_어느 현실주의자의 탄지 걸기’에서 논란이 된 ‘지능검사로 아이 나누기 vs 지능검사로 약자 보호하기’ 이항대립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능검사는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조영은 선생님은 “장애판정을 통해 복지혜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검사를 비롯한 여러 검사 결과 정신지체 기준에 해당하면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생각할 때 무심코 빠지기 쉬운 상식적인 전제가 있다. 그것은 “장애인들을 지금보다 좋은 상태로 있게 도와주자.” 혹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복지”라는 발상이다.

그런데 장애인을 둘러싼 문제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지의 말과 논리, 정서의 세계로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해주는’ 측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 차별 현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말과 정서로 무장한 내가 장애인을 차별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복지가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는 털끝만치도 없다. 단 ‘복지’라는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사되는 ‘권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교에서 특수학급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반을 사랑반, 잎새반 하면서 1학년 몇반 (5반, 7반)이라는 이름과는 다른 이름표를 교실에 달아두지요. 좋은 뜻이겠지만 그것 또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돼요. 아이들이 수군댁니다. 저 아이는 '사랑반' 아이라구요. 그러니 개랑 놀지 말라구요. 몇몇 아이들은 '개랑 손을 잡으면 손이 썩는다'며 누명 아닌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차별하는 법을 어른들에게서 배워서 나름 그 차별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지요) 요즘은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추세라 부분과목만 '사랑반'에서 배우고 나머지 과목은 교실에 와서 공부해요. 그런데도 원학급 아이들은 그 아이를 열외로 분류합니다. '사랑반'에서 왔기 때문이지요. 몇몇 착한(?) 아이들은 그 아이를 자기의 아주 어린 동생 대하듯 하지요. 돌봐준다는 의미지만 같은 수준의 친구이고 싶은 그 아이는 그런 대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의 능력 즉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뒤처지느냐 하는 것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 지는 학교라는 디자인된 현실 속에서 공부를 못하거나 지체가 있는 아이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행위('개랑 손을 잡으면 손이 썩는다')도 문제이지만 '돌봄' 혹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제 혹은 권력 행사가 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전자는 행하는 사람이나 그걸 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제3자의 눈에 상대적으로 가시화되기가 쉽지만 후자의 경우는 돌봄과 복지의 혜택을 입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은폐된 차별이자 배제이기 때문이다⁴⁾. 오자와 선생님이 '지능검사는 아이 나누기'라고 천명했을 때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차별을 엄두에 두었다고 생각한다.

상담이 만들어낸 디자인된 현실

조영은 선생님은 76호 글에서 “비지시적 상담 기법 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권력으로 점철된 관계로 흐를 수 있다는 오자와 선생님의 지적을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된 이야기로서 즉 ‘어떤 상담자’에 대한 비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자와 선생님은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라는 책에서 칼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를 개인 경험에 국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양쪽은 물론 그것을 지켜보는 제3자조차도 자각하기 힘든 상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담이 과학적·전문적 기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립적이며 인간적인 관계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확실히 부드러운 자세,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드럽게 붙잡아서 묶어둔다는 의미에서 한층 더 상대하기 벅찬 무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담이라는 방법의 부드럽고 친절한 스타일 때문에 상담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문제성, 기만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상담의 경우 학생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억압적인 교사들과 다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내면으로 침투해 들어와, 실제로는 교묘한 관리에 가담하게 되는 구도를 상담자조차도 깨닫기가 어렵게 된다.⁵⁾

4) 박동섭(2011c) 『어느 장애인 청강생을 차별·배제하는 상식적 카테고리화 과정 해독』, 교육인류학 연구, 14(3) pp. 137-163. 필자는 이 글에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고 은폐되는 차별형태를 ‘끌어안는 배제’라고 개념정 의하고 있다.

오자와 선생님은 덧붙여서 “상담자가 신경을 집중하는 것은 내담자 개인의 감정에 관해서이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전체에 관해서가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조영은 선생님의 추측과는 달리 비지시적 상담기법이 갖고 있는 문제가 오자와 선생님 자신의 상담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아버지를 과로사로 잃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카운슬링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저처럼 상처를 받은 아이들 모두에게 카운슬링을...”이라는 글을 신문에 투고한 초등학생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 중의 하나인 ‘과중노동’에 눈길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생’이라는 메타포는 상징적이다. 우리의 눈 또한 그 초등학생과 닮은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하는 오자와 선생님은 상담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림으로써 정작 봐야 할 문제를 등한시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오자와 선생님은 “비지시적 상담은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은폐시키는,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꿔치기 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녀는 “상담은 개인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바로 그 개인이 받을 달고 있는 사회의 지평 위에서 생각하는 계기를 뺀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저잣거리의 이웃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을 외면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상담의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깊지만 친하지 않은 관계’라고 일컬어지는 전문상담가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면서 만들어지는 ‘디자인된 현실’에서 벗어나 ‘깊지는 않지만 친한 관계’인 바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새로운 디자인된 현실을 모색하자는 것이 오자와 선생님의 비지시적 상담 비판의 골자라고 생각한다.

착한 심리학이 만들어 내는 다른 현실을 꿈꾸며

“(오자와 선생님은) 전문가의 존재 효용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부모와 교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먼저 교사와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우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자와 님 말씀처럼 마음을 돌보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전문가가 필요 없게끔 우리가 일상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돌본다면 참 좋겠습니다. 상품화된 상담을 일상의 일로 복원하고 되돌릴 수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조영은 선생님은 오자와 선생님의 입장을 나름 헤아리고 있다. 그런데 오자와 선생님의 시선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부모와 교사들이라기보다 오늘날 일본과 한국 사회를 디자인하고 있는, 심리학의 영향을 다대하게 받은 ‘개인의 내부’ 혹은 ‘개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주류 패러다임과 거기서 파생된 ‘학력’ ‘지능검사’ ‘자기주도 학습’ ‘학습 컨설팅’ 같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사회적 구성물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연동해서 어떻게 우리의 사고와 정서 및 동기를 철저하게 디자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본다.

오자와 선생님은 신자유주의는 개인들간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자기책임’이라는 냉혹한 키워드를 갖고 있지만, 심리학은 그 냉혹함이 낳은 사람들의 불만을 진정시켜, ‘자기 내면’

5)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교육으로부터의 해방』(pp. 123-124)오자와 마키코 저 박동섭 역, 서현사.

으로 관심을 향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결국은 개인이 떠맡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정치적·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제를 개인 내면으로 돌려 자기책임을 지우게 하는 역할, 즉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심리학이 맡고 있다고 회의의 눈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해서 오자와 선생님이 심리학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앞으로도 심리학이 사회 속에서 맡고 있는 다양한 역할이,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논의되는 것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글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이들을 위하는 새로운 심리학의 창조를 늘 시야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심리학은 착한 학문이어야 한다’는 조영은 선생님 생각과 공명한다.

그러면 심리학이 착한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철학자 김영민의 다음의 말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

생각은 그 외래적 기원을 잊고 무서울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돌아본다. 그리고 그 잡다한 생각의 다발들로 테두리를 짓고 벽을 쌓아 올리며 일회일비하는 것이다. 좋은 심리학은 늘 심리의 ‘바깥’에서 조언을 구하는 법이다. 그것은 마치 나의 모든 생각이 애초에 그 생각의 바깥에서 움터왔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일과 같다⁶⁾

심리의 ‘바깥’과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착한 심리학의 구축은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무심코 행하고 있는, **그래서 더욱 자각하기 힘든** 자신의 영역 확보를 위해 철옹성을 굳게 쌓아 올려 ‘영토화’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감히 담장을 넘겨다보는 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영토를 없애버리는 ‘탈영토화’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담장 너머에는 사회학, 문화인류학, 기호학, 언어학, 경제학 같은 이웃뿐만 아니라 저갯거리에도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필부라는 이웃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이로써 이웃의 차이들과 그 다양성에 노출되는 모험과 긴장이야말로 착한 심리학의 구축에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착한 심리학 구축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심리’ 혹은 ‘마음’을 우리 안에 불박여 있는 어떤 ‘실체’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 사회·역사적 인공물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존재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사람의 심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안(마음)’과 ‘바깥(사회)’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⁷⁾

이 글에서 나는 오자와 선생님의 관점에 대한 대변과 내가 전면에 내세운 ‘디자인된 현실’이라는 명제를 토대로 **우리가 손에 붙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현실’이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심리학의 영향을 다대하게 받은 ‘개인의 내부’ 혹은 ‘개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주류 패러다임의 파도를 타고 있는 바로 우리 손에 의해 디자인되고 있는 산물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었다.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필부인 옆집 박씨, 뒷집 김씨도 참가하는 디자인에 의해 세계는 우리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유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의 성립’은 도구를 만들거나 제도를 고안하는 것과 같은 외계의 구체적인 구성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느끼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

6) 『김영민의 공부론』 김영민 저, 샘터.

7) 이러한 관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불협화음론자 비고츠키 그 첫 번째 이야기』 참조.

는 것도 동시에 세계를 성립시키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다르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손에 잡힐 것만 같은 ‘학력’, ‘지능검사’,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능력’과 같은 사회적 구성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도 우리가 그동안 디자인해 온 것들이니 다시 디자인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다. 그 재디자인을 위해서 다양한 ‘바깥’과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는 착한 심리학의 공동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